

지역 매아리

정읍시, 전기차 보급 확대 박차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들어 2차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급물량은 올해 총 70대(10억5000만원) 중에서 1차로 45대를 지원한 후 남은 물량 25대(예산 범위 내에서 대수는 조정 가능하다. 시는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1세대(1기 업) 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공고일 전일 까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인 기업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시로 접수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이달 19일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d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과(☎330-5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유류비 절감 혜택이 많은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신청자의 수요와 호응에 따라 전기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7년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했다. 2017년 4대, 2018년 30대, 2019년 1차 45대를 보급, 총 132대 2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생태환경 복원 일환 메기 종자 50만 마리 방류

정읍시가 4월 5000만원을 들여 메기 종자 50만 마리를 풍진강과 원평천에 방류했다.

방류한 메기 종자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 이상의 크기다.

이번 방류는 어족자원 확충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 증식을 포함한 물론 사라져 가는 토속 어류 보존 등 자연생태 환경 복원을 위해 실시됐다.

방류 현장에는 어가와 수산인 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치어 보호에 방류 대상 지역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5천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붕어와 동자게 치어, 다슬기 종패 등 78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에서 열리는 '2019 고창갯벌축제'가 벌써부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친 일상 벗어나 자연속으로!

고창 갯벌축제, 7일~9일 심원면 만들갯벌서 개최
풍천장어잡기·염전체험·황금 거북알 캐기 등 다채

진흙이 잔뜩 묻어도 상관없는 흰 옷과 장화, 맛소금을 들고 바다로 향한다.

민반의 준비를 마친 뒤 갯벌에 조심조심 들어가 구멍이 송송 한 곳에 맛소금을 뿌려주면 조개가 빠끔히 개를 내민다.

모두 캐고 깨끗하게 씻은 후 라면에 잔뜩 넣어먹으면 천국의 맛이 따로 없다.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에서 열리는 '2019 고창갯벌축제'가 벌써부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갯벌축제 최고의 메인이벤트격인 '어서와 갯벌은 처음이지'에선 '갯벌 속 황금 거북알 캐기'부터 '갯벌 컬링 대회', '갯벌친구들과 놀자', '고창수산물에 맞춰라' 등 갯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펼쳐진다.

갯벌에서 산나게 뛰어놀고 출몰한 배를 채울 다양한 음식도 마련돼 있다. 고창 명품 김으로 만든 부각, 김밥은 물론, 중화튀김, 동죽해물리면 등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가 마련된다.

또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갯벌 브랜드 캠페인과 연계해 갯벌 관찰, 범게 가면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밖에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을 위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카페분위기의 휴식공간도 준비하고 있다.

고창갯벌축제 관계자는 "고창갯벌축제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며 "고창갯벌축제'가 고창군의 대표 수산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서 청문실, 피해자보호지원 중요성 강조 순회 간담회 가저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요성 강화를 위해 지·파출소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범죄 피해자 보호 임무가 경찰법 등에 명시된 지 1년여 시간이 흘러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과하고 넘쳐도 부족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지·파출소는 물론 대민 접점 부서 경찰관들을 찾아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피해자 여부, 위기개입 상담관 배치 등 다양한 피해자보호지원 방법에 대해 상기 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여청수사팀 한규근 경위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등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피해자보호지원은 큰 것을 해줘야 되는 줄만 알았던 무지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서장은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주 업무로써 절대 소홀히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 기능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자보호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125인의 정읍 문화도시 포럼' 성료

정읍공모사업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첫걸음인 '125인의 정읍 문화도시 포럼'이 지난 3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지역 주민들과 문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첫 순서인 기조 발제에서는 포항 문화재단의 차재근 대표이사가 '왜 문화도시인가'라는 주제로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차 대표는 문화와 인류, 문화도시 준비과제 등 문화도시로 나아가길 문화영역 전반을 알기 쉽게 설명,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공간문화센터 최정환 대표는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문화적 재생의 출발점이자 목표인 '문화력'을 강조하며 최근 문화 재생의

흐름을 소개했다.

또 한국지역창생연구소 전영철 소장의 '문화도시 가이드라인'과 '정책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로의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주제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은 2018년 제1차 문화도시 예비승인된 과정과 원주 문화도시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2부 시민대토론회에서는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125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정읍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성장 발전'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유력한 무성서원과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우리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 등 문화도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권익현 부안군수, 1박 2일 일정 국회 찾아 현안 9건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해 2020년 국가예산 4500억원 달성을 위한 발의행정을 펼쳤다.

권익현 군수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유동수·정세균·신경민·서삼석·이춘석·강병원·이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 정문천 의원 등을 잇따라 방문

중해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격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조성사업 등 9건을 건의하고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에 따른 동학인문정신 계승과 혁명정신 전승·세계화 등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 기존시설 및 신규 조성시설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023 부안 세계스타우트캠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여촌뉴딜 조성사업과 격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조성사업, 상원동도 연안항 조속 개발, 공항 마린시설 조성사업, 격포항 확장 개발,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신항만~새만금 홍보관),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을 건의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정책 등을 신속히 파악·분석하고 적극 대응해 미래로 세계로 행동하는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삶의 질 향상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정읍시가 시민 모두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취미와 문화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이

용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매년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들이 1년간 자신의 취미와 사회, 문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읍지역에서는 15개 분야(노인복지 분야, 아동복지 분야, 장애인·청소년 분야)에 약 2천명의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